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Daughters-in-law's Relationship with Mothers-in-law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박 소 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박 태 영***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Doctoral Course : Park, So-Young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Tai-Young

<Abstract>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tended to regard the relationship as a conflicting one. This study, unlike the previous ones,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s it is and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the real relationship. Another aim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ocial services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in-law. To achieve these aims, the central question of the study was, "What are the daughters-in-law's experiences with their mothers-in-law like?"

The participants for the study consisted of 12 daughters-in-law who volunteered to be interview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presented by Strauss and Corbin. As a result, 154 concepts and 42 sub-categories were induced, and finally 18 categories were induced in the course of classifying and integrating these sub-categorie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relationship might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nd that it might even be possible to change from one to the o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any factors influenced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and that the husband's ro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Using this study's results as guidance, general programs designed to cultivate mo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in-law can be created and implemented; additionally programs that help the husbands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 and roles can be devised.

▲주요어(Key Words) : 며느리(daughter-in-law), 시어머니(mother-in-law), 관계(relationship), 경험(experience), 근거이론(ground theory)

* 이 논문은 박소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주 저 자 : 박 소 영(E-Mail : nillyria@hanmail.net)
*** 교신저자 : 박 태 영(E-Mail : typark@ssu.ac.kr)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서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혼에 의해 한 가족이 된다. 아들/남편이라는 한 남성을 매개로 맺어진 이들 고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강요받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Bryant, Conger, & Meehan, 2001). 이러한 독특함으로 인해 고부관계는 며느리가 시대 식구들과 맺는 관계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관계라고 인식되어 왔다(Bryant & Conger, 1999; Globerman, 1996; Servoich & Price, 1994).

Cotterill(1994)은 결혼을 친족이든 남이든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관계로 간주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도 고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고부관계의 어려움은 실증적 자료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 사유별 이혼 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전체 이혼 수 128,468건 중 고부갈등을 필두로 하는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이혼이 12,206건으로, 63,164건에 이르는 성격차이와 19,132건에 이르는 경제문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www.kosis.kr).

원만하지 못한 고부관계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혼하지 않고 사는 많은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고부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부부관계와 다른 가족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부갈등은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고부갈등이 빈번할수록, 그리고 고부갈등을 심하게 지각할수록 며느리의 심리적 안녕 수준이 낮았다(김태연, 1994). 또한 고부갈등은 모자관계와 며느리의 부부관계, 손자녀와의 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의 안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성명옥·이혜자, 2002; 유영주 등, 1996).

그런데 시대에 따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예전 사회에서 며느리는 최하위의 지위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권리보다 의무가 많았으며,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완벽한 상하관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절대적인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유교적인 가족 윤리와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를 통해 고부관계가 다스려져 왔기 때문이다(이정연 등, 1996).

한국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가족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진출이 증대되면서 부자관계가 추축을 이루던 가족구조는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바뀌었다. 전통적 가족규범이 붕괴되고,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지닌 중요성이 약화되고, 경제력을 지닌 며느리의 입장이 강화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고부관계 역시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중이다(구자경, 1999).

고부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해가면서 긍정적인 고부관계의 실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역설적으로 수직적인 고부관계에서보다 고부갈등이 보다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구적 가치를 교육받은 며느리들이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인내하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최효일, 1992). 또한 수평적인 가족관계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효사상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고부관계에서 사고와 행동이 괴리되는 현상도 전통사회에서 보다 고부갈등이 더 많이 표출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고부관계가 획일화된 상하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긍정적인 고부관계도 제시되는 동시에 갈등 역시 심하게 표출되는 실정에서 그 다양한 관계 양상을 실제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가족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와 같은 핵가족 단위의 연구보다 적은 편이다(Fischer, 1983; Goetting, 1990; Lopata, 1999; Walker, 2000). 또한 고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고부갈등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나 고부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정자·김갑숙, 1993; 김필양, 2004).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재조명한 김필양(2004)은 고부간의 갈등구도를 축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제의 고부관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고부관계를 부정적인 갈등상황으로만 일관되게 연구해온 나머지 사회에 퍼져있던 고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했다.

고부갈등에만 몰두한 주제의 편향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고부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가족관계란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과 긍정적인 감정과 느낌이 혼재되어 있으며,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고부관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다(Limary, 2002; Luescher & Pillemer, 1998).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고부관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고부관계 경험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고부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상황이나 특성, 상호작용들은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며느리들의 고부관계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셋째, 긍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부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며느리들의 관점에서 고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고부관계 형성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인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했다. 본 연구결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 다른 가족성원들에게 고부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고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II. 문헌고찰

고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고부갈등을 축으로 주체의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그 구체적인 고부갈등의 요인을 연구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갈등요인을 구조화시킨 이기숙(1985)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상대적 비교와 시모의 이기적 태도와 소외감, 시모와의 대화결여, 친척 및 가습의 차이, 손자녀 문제, 친정 문제 등의 갈등 요인이 지적되었다. 박현옥(1990)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비합리적 처사와 시모의 생활태도, 가정관리의 미숙과 시모의 융통성 없는 태도, 시모의 지나친 기대, 소외감, 자녀양육문제가 갈등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김충미(1994)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대한 며느리의 부담감, 시어머니의 의존이나 소외감, 과거사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과 딸과 비교하거나 매사에 간섭이 심한 것, 아들에 대한 애정 욕구가 강하며, 잘한 일보다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며, 늘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갈등원인이 지적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를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연구(송현애·이정덕, 1995)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와, 분거를 하는 경우라도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갈등이 심했지만, Marotz-Baden과 Cowan(1987)은 동거여부가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며느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들도(구자경, 1999; 성인애, 1991) 있다. 또한 며느리의 학력(이정연, 1990)이나 며느리의 취업여부도(배선희, 1996) 고부갈등의 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그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며느리의 학력의 영향에 대한 결과들이 상이하며, 마찬가지로 취업한 며느리들이 고부갈등을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오히려 이중역할 부담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남편의 출생 순위 역시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연구 결과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다. 송현애와 이정덕(1995)의 연구에 의하면 맏며느리나 외며느리의 경우에는 다른 며느리들 보다 부양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갈등도 심하다고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양 스트레스가 남편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있다(이신숙·서병숙, 1994; 최정혜, 1994).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결혼 기간이 연구되어 졌는데, 박부진(198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며느리의 시집살이에는 차이가 없으나 스스로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방법 면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택한 논문들은 그 수가 몇 편에 그치는 실정이고 대부분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성인애(1991)는 비구조화된 면접방법으로 고부갈등의 원인과 고부갈등의 행동특성 및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했다. 배선희(1997)는 계급론적 입장에서 맏며느리가 고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상류계층은 '허위적 고부관계'로, 중간계층은 '며느리만 갈등을 느끼는 고부관계'와 '양쪽 모두 갈등을 느끼는 고부관계',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로, 하류계층은 '방기'와 '갈등 관계'로 규정했다. 이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택해 며느리의 고부관계 인식을 탐색한 점에서 본 논문에 대한 시사점이 크지만, 연구자 스스로 결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부관계에 있어서 계층적 차이에 집중하느라 사회심리적 요인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고부가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그 차이를 살펴본 구자경(1999)의 연구에 의하면 시어머니의 권위 하락과 가족 내 며느리의 지위향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시어머니 우위형과 며느리 우위형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고부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고부갈등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족할 뿐더러, 실제적으로 고부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

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를 탐색하여,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고부관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고부관계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고부관계 경험에 대한 생생하고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하려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적 방법론을 채택했다. 양적 연구방법은 통계 처리된 결과를 통해 고부관계의 경향성은 파악하기 용이하나 그 이면에 내포된 실체와 의미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배선희, 1997). 그러므로 고부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가치를 두고서 그 경험들과 관련된 의미를 자료화하고, 그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근거이론 방법은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구조 및 과정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해내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각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고부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고부관계 경험 과정의 여러 요인과 맥락에 대해 근거이론적 방법론에 따라 분석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방법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은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이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념들을 근거로 전개되는 이론에 대해 이론적 관련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론적 관련성이란 몇 개의 사례에서 도출된 어떤 개념이 잇따르는 사건들을 비교해 볼 때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뚜렷하게 사라져서, 그 개념이 범주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된 자료나 대조적인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분석 도중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지점인 이론적 포화 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며느리들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고부관계 경험을 연구하고자 자녀를 둔 며느리들로 그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가 고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며느리와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 후 분가한 며느리들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결혼시킨 아들의 시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입장에 있으면 두 입장을 다 경험한다는 점에서 며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벗어나므로, 아직 시어머니가 되지 않은 며느리들로 제한했다.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접 장소는 대부분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인 참여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했으며, 본인의 집에서 면담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두 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집에서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 1명당 평균 2회에 걸친 면접을 실시했으며, 면접 시간은 1회 당 평균 100~12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2회의 면접을 마치고서도 참여자가 더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남아 있거나 연구자가 더 탐색할 자료가 남아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와 논의를 거쳐 추가 면담과 전화면담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적 방법론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한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이 끝나면 녹음 내용을 기록으로 옮겨 녹취록을 작성해 두었다. 그리고 녹음내용을 수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윤곽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후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을 도출해내고, 공통점을 찾아 하위 범주와 상위범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는 선택코딩을 실시했다. 그 범주들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인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맞추어 고부관계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는 축코딩을 하고, 자료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하고 정교화시켜 이야기 윤곽을 만들고, 연구참여자들의 고부관계 경험을 유형화했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직접 전해들은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했다. 매 회 면접을 녹음하되 반드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면접 도중이라도 연구 참여자가 녹음이나 연구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면접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한 출판되는 연구결과에서는 물론이고 녹취과정에서부터 익명을 사용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출판된 자료를 추정해 신원을 알 수 있는 특이 사항들은 기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5. 연구의 신뢰성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가장 주된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인식과 지식, 감성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자의 주관성 자체가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구자 스스로도 며느리 입장에 있다는 점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나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고부관계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자료의 분석에 임할 때는 이러한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가치가 전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구자가 항상 주관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 자료 수집에서부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면담 자료를 녹음하여 연구자의 회상이나 요약기록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면담 녹취록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가 면접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고, 두 차례에 걸친 면접에서 동일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관되는가를 검토했다(Patton, 2000).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 2명으로부터 원자료에서 개념과 범주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개방코딩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고부관계 경험에 관한 개념들을 도출했고, 그 개념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범주로 명명해 갔다. 그 결과 고부관계 경험에 관한 152의 개념과 이 개념들을 통해 하위범주 42개를 도출했다. 이 하위범주들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18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나이	직업	경제적 교류	결혼기간	거주 형태 (시모와 동거여부)	자녀수	동거기간	학력(졸)	남편 형제서열
A	40	유	무	10년	비동거	2명		대학원	차남
B	38	유	유	11년	동 거	2명	6년	대학원	차남
C	40	무	무	9년	비동거	2명		대 학	장남
D	37	유	유	11년	동 거	2명	5년	대 학	차남
E	39	유	유	12년	동거 후 비동거	2명	2년	대학원	장남
F	33	무	유	7년	비동거	2명		대 학	장남
G	44	유	유	16년	비동거	2명		대 학	장남
H	37	유	무	10년	동거 후 비동거	2명	8년	대학원	장남
I	43	유	유	13년	비동거	2명		대학원	차남
J	35	무	유	8년	동거 후 비동거	2명	3년	대 학	차남
K	35	유	유	8년	동 거	3명	7년	대 학	장남
L	41	무	유	14년	동거 후 비동거	2명	9년	대 학	차남

<표 2>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주
가족이 아닌데 가족인 관계, 고부관계에 대한 환상, 남편(아들)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	고부관계의 독특성	
아들을 뺏어가는 느낌, 직업이 없는 며느리가 탐탁지 않음, 사돈에 대한 경쟁 심리, 시어머니가 자신을 맘에 들어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긴장, 친정과 시댁의 차이 나는 경제력	탐탁지 않은 며느리	고부관계 형성하기
연애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서 친숙하고 편함, 종교가 같아서 맘에 들어 하심, 아들 뒷바라지 한 데 대한 고마움, 아들이 고른 여자를 인정함, 결혼 지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하고 잘해줌	며느리에 대한 좋은 인상	
서로 조심, 갈등 언급 회피, 비난 안함, 간섭 안함,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	적당한 거리감	
신뢰감, 집안 일 의논, 며느리 편에서 아들 꾸중, 편하게 해주심, 며느리의 방식 인정함, 딸과 엄마의 관계처럼	신뢰감과 가족이 된 느낌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칭찬하고 격려함, 고마움에 대한 표현, 배려함	애정 표현과 배려	
시누이와의 차별 대우, 남편과의 차별 대우, 시모의 무시	차별대우	
아들(남편) 앞에서 갈등 표현 안함, 아들(남편)과 며느리에게 다르게 말함, 시모의 이중성, 집안과 바깥에서의 행동이 다른 시어머니, 시모의 거짓말	시모의 이중성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긴장, 불편함, 소외감, 집안 문제 해결에서의 소외	긴장과 소외감	
생활 습관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습관 사고방식 차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그 생각에 매몰됨, 상상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함, 시어머니에게 비난당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꿈, 불안과 스트레스 경험, 화병과 건강 악화	심리적 신체적 증상	
확실한 역할 분담, 간섭 안 함	시어머니의 분화	시어머니의 분화
아들과 밀착된 관계, 살림살이 마음대로 간섭함, 며느리의 삶을 조종하려 함	시어머니의 미분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시모가 너그러워짐,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며느리가 너그러워짐, 경제력 가진 며느리에게 잘해줌, 경제력이 없는 시모의 자격지심, 경제력으로 며느리를 조종함함	경제력	
시댁과의 경제적 교류 없어서 편함	경제적 독립	경제적 상황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다른 형제 도와주라고 요구하는 시모, 경제력으로 며느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시모	부정적인 경제적 교류	
정기적 용돈이 경제적 타격 안 됨, 부양의식, 시어머니의 고마움 표시	긍정적인 경제적 교류	
육아와 가사 도움 위해 동거의 필요성 절실함,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의 필요성 절실함,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 강해짐,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서로 배려함	만족스러운 동거	
동거의 필요성 못 느낌, 살림살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 식습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공간의 협소함에서 오는 긴장, 부모님에게 맞추어서 행동해야 하는 불편함, 모든 행동이 노출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 성관계에서의 어려움	불만족스러운 동거	시어머니와의 동거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편해짐,, 갈등을 삭힐 수 있는 시간가질 수 있음, 교류 없어서 문제도 없음, 소원해서 편한 관계	분가	
장남의 부양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어머니, 장남에게 과도한 기대하는 시어머니, 차남이어서 갖는 자유와 이점, 차남이 시어머니 모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며느리	부양의식에서의 차이	
윗동서와 관계가 나쁜 시어머니가 더 호의적으로 대해줌, 시어머니의 다른 형제 편애, 시누이와의 불화로 인해 시어머니까지 미워짐, 동서와의 불화로 인해 시어머니까지 미워짐	형제들 사이의 역학관계	남편의 형제 서열
시누이의 중간 역할, 시누이의 완충제 역할, 시누이의 배려	시누이의 중간 역할	
시어머니 두둔하지 않는 남편, 아내 비난하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남편, 남편의 분화	남편의 분화	
남편의 중간 역할, 남편의 지지, 남편의 위로	남편의 지지	남편의 역할
남편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남편의 중재 노력 없음, 남편의 지지 없음	남편의 지지 없음	
시어머니의 관여가 덜 함, 고부 갈등을 잊게 함, 취업으로 인한 확실한 역할 분담,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대해 배려 없음에 서운함	취업한 며느리	며느리의 취업
취업에 대한 은근한 중용, 고부갈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짐	취업하지 않은 며느리	

<표 2> 계속

개 념	하위범주	범주
평생 가족으로 살 사람이잖아요, 평생 봐야 할 관계	결혼관계의 지속	결혼관계 지속 의지
남편에 대한 배려, 남편에 대한 연민,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배려	남편에 대한 연민
자녀 출산으로 서먹함 없어짐, 딸을 낳아 못 마땅한 시어머니, 아들을 낳아 더 잘해준 시어머니, 손자녀의 긍정적 역할	자녀출산으로 인한 변화	자녀출산
시어머니에 대한 공감,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친정엄마를 생각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생김	공감과 연민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친정엄마의 중간 역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입장 대변	친정엄마의 역할	중간역할 체계
친구와의 수다를 통한 카타르시스, 친구에게 해소	친구들의 역할	친구에게 해소
익숙해짐, 포기하기, 서로 타협하기	적응과 포기	적응과 관계선
심리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
중이 된 느낌이 들어서 시댁에서 혼자서는 청소 안함, 무리한 돈 요구 거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밝힘	경계선을 분명히 함	분명히 하기
남편에게 며느리의 입장을 설명함, 남편에게 호소	남편에게 호소하기	남편에게 호소
남편에게 분노 표출	남편에게 분노 표출	남편에게 호소
며느리가 사과함, 시어머니가 사과함, 시어머니가 화해의 신호 보냄, 자기 입장 표현을 통한 관계 개선, 시누이와의 관계회복 위해 이메일 보냄	적극적인 대처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
갈등을 풀지 않고 지나가는 시어머니, 사과하지 않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자기 입장표현 묵살	부정적인 대처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
각자 삶을 인정하며 밀착되지 않은 관계,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애정, 환상적인 조합	긍정적인 고부관계 유지	관계의 성숙
적극적 대처로 인한 고부관계 개선, 며느리의 극진한 병수발 후 관계 변화, 분가로 인한 고부관계 개선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관계의 성숙
익숙해졌을 뿐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결정적인 계기로 고부관계 악화	부정적인 고부관계의 지속	관계의 위축
시어머니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시어머니의 차별대우로 인한 고부관계 악화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관계의 위축

1) 고부관계 형성하기

참여자들은 결혼으로 인해 맺어지는 고부관계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남이 아닌 가족이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딸과 어머니처럼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고부관계는 관계 자체에 내재한 독특성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결혼 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인식이 고부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시어머니가 호감을 가진 경우 그 시작이 순조로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고부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첫 인상은 향후의 고부관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 고부관계의 독특성

시어머니와도 딸과 같이 지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인데, 잘 지낼 수 있을 꺼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정말 환상인 것 같아요 사실 나하고는 정말 남이잖아. 피 한 방울도 안 섞었는데. 근데, 남인데 또

전혀 남도 아닌 이상한 관계잖아요. [고부관계에 대한 환상; 참여자 C]

• 탐탁지 않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좀 별나게 구셨어요 딱 말하는 게 니가 내 아들 지금 뺏어가는 것 같아서 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아들을 뺏어가는 느낌: 참여자 F]

• 며느리에 대한 좋은 인상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자기 집으로 날 데리고 갔어요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계속 부르면서, 정말 우리 관계도 말 그대로 엄마와 딸 비슷해요. [연애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서 친숙하고 편함: 참여자 K]

2)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몇 십 년 씩 살다가 가족

으로 엮인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역할 했다고 말했다. 그러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서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서로 조심한다고 했으며, 특히 시어머니가 참여자를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었다.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고 딱 대하지는 않으세요. [서로 조심함: 참여자 A]

•애정표현과 배려

애들 먹이는 거나 이런 거에서 어머니가 나를 칭찬 하시는 편이죠. 우리 애들은 과자나 외식 같은 것도 안 먹고 집에서 밥으로 잘 먹이니까 습관이 너무 잘 들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 해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고 격려함: 참여자 D]

3)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그러나 참여자들은 딸인 시누이와 며느리인 자신을 차별대우하거나 아들인 남편과 자신을 차별대우한다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며, 시어머니가 이중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고부관계는 악화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긴장이나 불편함과 더불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가 배제되는 데서 오는 소외감도 경험했다.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을 자주 겪게 되자 시어머니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곱씹어 생각하고, 그 생각에만 빠져 들어 다른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기도 했다.

•차별대우

음식 배분을 할 때도 며느리는 좀 다르게, 더 나쁘게, 챙겨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아들네는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은. 딸을 더 많이 챙겨주고. [시누이와의 차별대우: 참여자 C]

•시모의 이중성

우리 어머니 바깥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고... 엄청 싹싹해. 근데 집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고 애들한테도 관심이나 사랑을 안 주고...[집안과 바깥에서의 행동이 다른 시어머니: 참여자 B]

•심리적, 신체적 증상

눈만 뜨면 시어머니 일 생각이지. 그 일이 딱 터지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1년 동안 거의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그 생각에 매몰됨: 참여자 G]

4) 시어머니의 분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고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론 우선 시어머니의 분화 여부를 들 수 있다. 분화(differentiation)란 타인을 다른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화된 시어머니들은 아들과 자신을 각각 다른 인격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분리시켜 사고한다. 시어머니가 분화되어 있는 경우 며느리는 보다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참여자들은 불편한 경험을 했다.

•시어머니의 분화

어머님 자신이 하실 일은 정확히 하시고 제 일에는 간섭 안하시는 편이세요. 아들은 결혼시켰음 당신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살아도 참 편한 것 같아요. [간섭 안 함: 참여자 K]

•시어머니의 미분화

우리 어머니 아침 7시마다 전화하세요. 정말 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넘어서 불안을 느껴요. 전화해서는 '아범은 밥 먹고 갔냐'고 묻고 [며느리의 삶을 조종하려 함: 참여자 J]

5) 경제적 상황

참여자들은 경제력이 고부관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시어머니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을 때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 때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더 너그러워지기도 했다. 경제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고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기보다는, 그 교류가 며느리의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과도한 양인가의 여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었다.

•경제력

결정적인 원인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지신 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애. 그래서 날 좀 덜 건드리고 지나가시더라고. 어머니가.[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시모가 너그러워짐: 참여자 C]

•불만스러운 경제적 교류

자꾸 돈하고 연관되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안 터졌으면, 그 많은 돈을 내가 갚아 주지 않았으면 너무나 지금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잘 지내고.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참여자 G]

• 긍정적인 경제적 교류

근데 더군다나 어머니님이 고맙다고 생각 하시니까
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시어머니의 고마움 표시:
참여자 D]

6)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도 고부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분가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생활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거를 하는 경우라도 며느리 측에서 육아나 가사, 혹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거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며느리가 동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동거가 고부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시어머니와의 만족스러운 동거

어쩔 수 없이 어머니님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라고 하셨어요... 당장 살 데가 없었으니까 들어가 살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의 필요성 절실함: 참여자 L]

• 시어머니와의 불만족스러운 동거

나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힘든 것 같애. 빨리 보이잖아요. 정말 어머니 말대로 쿨구멍 속 같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다른 문 열면 어머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공간의 협소함에서 오는 긴장: 참여자 H]

• 분가

예전에 고부관계에 대해, 집안에 들어오면 항상 그걸 느낀다라는게 거의 한 70%였다면, 지금은 한 20%?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편해짐: 참여자 H]

7) 남편의 형제서열

참여자들은 남편의 형제서열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장남의 경우 부모 부양의식이 강했으며 부모 역시 장남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다(김현주, 2001). 참여자들은 장남의 부모 부양을 당연시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시어머니의 큰 기대에 항상 못 미쳐, 그 결과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장남이 아닌 차남 이하의 며느리인 경우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웠으며, 이는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부양의식에서의 차이

우리 어머니 장남은 어머니를 다 책임져야 하는 존재고 차남은 계속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남에게 과도한 기대하는 시어머니: 참여자 E]

• 형제들 사이의 역학관계

한 번은 정말 정식으로 대판 동서하고 붙었는데, 글썄 어머니님이 동서 편을 드는 것처럼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형님하고 어머니님이 같이 미워지더라고요. [동서와의 불화로 인해 시어머니까지 미워짐: 참여자 L]

8) 남편의 역할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남편이 고부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배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분화된 상태로 중립 입장을 지키는 경우라도 참여자들의 고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경험하던 참여자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첨예화되었을 때, 남편의 위로나 지지를 받았을 때 참여자는 고부갈등으로 상한 마음을 다 잊게 되었다. 반대로 남편이 전혀 참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을 때 참여자들은 절망감을 느꼈다.

• 남편의 분화

예들 아빠가 참 객관적인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어머니 한 번씩 생트집 잡을 때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어제 오늘 일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했어요. [시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남편: 참여자 J]

• 남편의 아내 지지와 위로

근데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나면 우리 신랑은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앞에서 공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둘이 있을 때, 100% 자기는 내 편이라고 하지. 그게 엄청 위로가 돼요. [남편의 지지: 참여자 B]

• 남편의 지지와 위로 없음

한 번은 정말 이런 건 너무 싫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한 번 말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면 니가 집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도 이 집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게, 그 순간에 딱 무너졌던 거지요. [남편의 지지 없음: 참여자 H]

9) 며느리의 취업

참여자들의 취업도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취업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시댁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서로 관여를 덜하게 되어 고부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소지가 적었다. 특히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에서의 역할 분담이 되어서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이 고부관계에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가사와 취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피곤해진 참여자들은 시어머니가 그러한 상황을 참작해주지 않을 경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 취업한 며느리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관여가 덜 함: 참여자 A]

• 취업하지 않은 며느리

난 그 당시보다는 나중에 그 상황을 곱씹는 편인데, 내가 전업주부로 있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계속 떠오르면서 확대되고,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고부갈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짐: 참여자 E]

10) 결혼관계 유지 의지

시어머니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고 힘이 들 때에도 고부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남편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한, 즉 이혼하지 않는 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염려와 배려 때문에 참여자들은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 결혼관계의 지속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거를 좀 버려야겠다.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평생 가족으로 살 사람이잖아요: 참여자 F]

• 남편에 대한 배려

정말 어쩔 땐 어머니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엄마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고. [남편에 대한 사랑: 참여자 E]

11) 자녀출산

참여자들은 자녀출산이 고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했다. 처음 결혼 한 후 시어머니와의 서먹서먹하고 긴장된 관계를 풀어준 것이 자녀의 탄생이었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자녀출산이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특히 첫 아이로 딸을 낳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해서 고부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했다.

• 자녀출산으로 인한 변화

셋째로 바라던 아들을 낳아 드렸더니 정말 더 잘해 주셨어요. 셋째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낳았고, 또 그래서 어머니 더 잘해주셨고, 전 더 편해졌죠. [아들을 낳아 더 잘해주는 시어머니: 참여자 K]

• 자녀의 역할

어머니한테 직접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직접 하질 못하고, '애들이 인사해야지' 하면 애들이 우루루 가서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러면 난 '방에서 좀 놀다와' 해요. 내가 살갑게 못 하니깐. [손자녀들의 역할: 참여자 D]

12)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참여자들은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고 더 잘 대해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는 긴 인생을 통해 고생하신 시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이기도 했으며, 나도 저렇게 늙을 것이라는 공감이기도 했다.

• 공감과 연민

우리 어머님이 살아오신 과정이 있잖아. 내가 살아온 건 정말 소설 한권이다. 이러면 정말 힘들게 살아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여자이고, 엄마라는 점에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공감: 참여자 I].

13) 중간역할 체계

참여자들은 친정엄마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이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시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로, 비슷한 삶의 경험이 있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참여자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 친정엄마의 역할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배니까. 그래도 니가 잘 해야 된다. 돈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엄마의 이런 말들이 생각을 좋게 하려는 데 도움

은 된 것 같아요. [친정 엄마의 중간 역할: 참여자 F]

• 친구들의 역할

며느리들끼리 앉아서 시어머니 욕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집에 오면 좀 용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친구와의 수다를 통한 카타르시스: 참여자 H]

14) 적응과 경계선 분명히 하기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니에게 적응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긴장이 사라지고 익숙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부분이 늘어났으며, 더 나아가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생겨났는데, 참여자들은 포기과 체념을 통해 오히려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 적응과 타협, 그리고 포기

익숙해지면 서로에 대해서 아니까, 서로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를 버리게 되잖아. 처음 같으면 왜 저런 말을 할까하고 머리를 막 굴리는데, 지금은 손바닥 보듯이 뻥하잖아. [익숙해짐 : 참여자 K]

• 심리적 거리 두기

오히려 거리감을 명확하게 가진 거야. 그때는 내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할 부분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딱 있고 해서 마음은 더 편해요. [심리적 거리두기: 참여자 B]

15) 남편에게 호소

참여자들은 고부갈등 상황이나 고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해결받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참여자가 바라는 대로 남편이 위로하거나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즉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게 되었다.

• 남편에게 호소

어머니가 한 소리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나면 해결은 안 되어도 조금 해소는 되고 또 그렇게 넘어가요. [남편에게 호소: 참여자 C]

• 남편에게 분노 표출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엄청 화를 내죠 사실 남편한테 얘기하는 건 위로를 받고 싶어

서인데, 그 위로를 잘 못 받고 나 혼자 화만 내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분노 표출: 참여자 E]

16)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경험을 했다. 사과를 하는 등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나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시어머니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거나 선부른 노력으로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하기도 했다.

• 적극적인 대처

전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갈등 국면이 지나고 나면 제가 그런 말에 기분이 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 상황을 알리는 게 도움이 됐어요. [자기 입장 표현: 참여자 J]

• 부정적인 대처

아예 얘기가 없으세요. '지난 번 일은 너한테 미안하게 되었다. 너한테 뭘 덜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누들한테만 좋은 것이 가게 된거다' 이런 말만 있어도, 그게 거짓말이더라도, 내가 기분이 좀 풀리고, 그러면 어머니도 더 잘 대할 텐데. [사과하지 않는 시어머니: 참여자 D]

17) 관계의 성숙

결혼 당시 시어머니의 호의적인 반응과 대우 속에서 고부 관계를 시작한 참여자들은 가끔씩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남편의 위로나 지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모두의 포기과 적당한 거리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처음 고부관계가 나빴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함으로써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하기도 했다.

• 긍정적인 고부 관계 유지

하야간 나는 우리는 참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헌신적인 어머니와 뻔뻔하고 뻔뻔한 며느리의 만남. [환상적인 조합: 참여자 K]

• 긍정적인 고부 관계로 변화

시어머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어느 한계까지는 봐주고 좀 과하다, 나는 도저히 이 말을 듣고 살 수는 없다 싶은 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쌓이는 게 없죠, 털어버리니까. [적극적 대처로 인한 관계

개선: 참여자 F]

18) 관계의 위축

결혼 초에 고부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참여자들 중에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처음의 긴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고부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신혼 초 고부관계가 형성될 당시에는 서로 호의적이었던 참여자들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악화된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으론 시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 요구와 다른 형제에 대한 편애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 부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10년 전에 비해서 익숙해진 건 있지만,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편안해진 거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 본질이 변한 거는 아니고 [익숙해졌을 뿐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참여자 C]

•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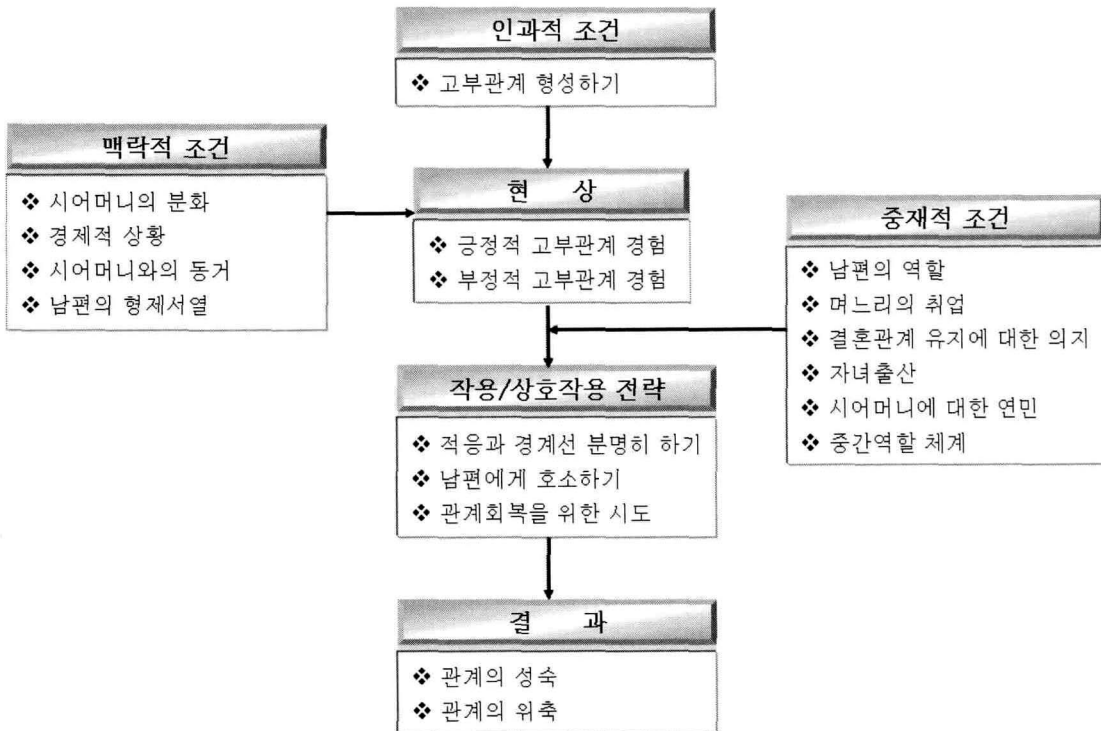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 주신 게 다 위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도 밝히지 않는 그 많은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도대체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었지. [시어머니로 인한 경제적 타격: 참여자 G]

3. 축코딩

축코딩의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단계를 통해 근거자료에서 뽑아낸 개념과 하위범주들을 범주에 연결시키고, 그 범주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근거이론 방법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한 구조분석은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과정이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은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과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고부관계 형성하기가 발견되었다. 참여자들은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의 어머니와 고부관계를 형성했다. 참여자들은 3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도 없는 독특성을 가진 관계가 바로 고부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 남자를 두고 엄마와 아들,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부터 긴장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에 대해 갖는 호감의 정도가 바로 그 요인이었다. 시어머니와 결혼 전부터 서로



<그림 1>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왕래가 있었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여러 조건을 흡족해 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다. 참여자가 그러한 호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럽고 호의적으로 되었다. 처음에 긍정적인 고부 관계를 형성하게 된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만나면서 신뢰감과 한 가족이 된 느낌을 갖게 되며 동시에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시어머니가 참여자의 여러 조건들을 맘에 들어 하지 않거나 첫 인상을 나쁘게 갖게 되면, 둘 사이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고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처음에 부정적인 첫인상으로 고부 관계를 시작했던 참여자들은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자신을 차별대우 하거나 남편만 중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경험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긍정적인 고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참여자들도 여전히 느끼는 바였지만, 그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가 다른 점이었다.

이렇듯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이 쌓이게 된 참여자들은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화병과 신체적인 질병까지 포함했다. 참여자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거나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쌓여 폭발할 지경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신경이 고부관계에 집중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부부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들이 있었는데, 우선 시어머니가 아들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분화되어 있을수록 며느리와 아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적었고, 그 결과 고부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적었다. 시어머니의 분화는 특히 며느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큰 역할을 했다. 시어머니와 동거하면서도 긍정적인 고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들과 시어머니 모두 분화되어 있어서 서로의 삶에 간섭하는 정도가 적고 자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참여자들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육아와 가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상황이 허락되면 분가 형태로 지내는 것이 긍정적인 고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형제서열 또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건 중 하나였는데, 남편이 장남인 참여자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의 부양의식을 당연히 여기고 의무를 많이 지우는 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남편이 차남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에서 자유로웠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았고 보다 너그러운 태도로 참여

자들을 대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적 상황 역시 고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맥락적 조건이었다. 참여자들은 시어머니나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보다 긍정적인 고부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적당한 정도의 지원을 주거나 받는 경제적 교류는 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부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경험했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조건들도 많았는데, 그 중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참여자들은 고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부정적으로 만드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남편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우 남편들은 시어머니와 밀착되어 있지 않고 분화되어 있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고부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편들이 시어머니와 분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다른 한편 남편이 참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위로하는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 중 남편이 참여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위로 하는 경우에는 고부갈등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서 극복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관하면서 참여자에게 아무런 위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부갈등이 증폭되었다.

참여자들의 취업 역시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조건이었는데, 시간과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고부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비중이 높았다. 다른 한편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지속하는 한 고부관계가 지속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여자로서 참여자들이 시어머니에게 느끼게 되는 공감과 연민도 큰 중재조건 중 하나였으며, 비슷한 연배의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역시 고부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참여자들이 고부관계 경험을 하면서 취하게 되는 여러 작용/상호작용으로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타협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 입장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밝혀서 시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반면에 시어머니가 그러한 시도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처

<표 3>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과정에 대한 유형분석

	긍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 1)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 2)	부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 3)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 4)
인과적 조건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좋음)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나쁨)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나쁨)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좋음)
현상	고부관계 경험 (긍정적)	고부관계 경험 (부정적)	고부관계 경험 (부정적)	고부관계 경험 (긍정적)
맥락적 조건	시어머니 분화(분화) 경제적 독립 경제적 교류(긍정적) 분가 동거(만족스러움)	시어머니 분화(미분화) 경제적 교류 (부정적 → 긍정적) 분가 동거(불만족스러움) → 분가	시어머니 분화(미분화) 시어머니의 편애	시어머니 분화(미분화) 경제적 교류(부정적) 분가 → 동거(불만족스러움) 시어머니의 편애
중재적 조건	남편의 분화(분화) 남편의 지지(있음) 취업(취업함) 결혼관계 유지 의지 (강함)	남편의 분화(분화) 남편의 지지(있음) 자녀출산 결혼관계 유지 의지 (강함)	남편의 분화(미분화) 남편의 지지(없음)	남편의 분화(미분화) 남편의 지지(없음)
작용/상호작용 전략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적극적)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호소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적극적)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호소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소극적)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호소 (분노 표출)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소극적) 남편에게 호소 (분노 표출)
결과	관계의 성숙	성숙된 관계로 변화	위축된 관계의 지속	관계의 위축
참여자	A, D, I, K	F, H, J	C, L	B, E, G

하는 경우에는 고부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들과 더불어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으며, 남편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기대가 충족될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개선되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연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중재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나 시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호의적인 관계로 출발했던 참여자들이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또한 처음부터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시작했던 참여자들 중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 남편의 중재 역할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첫 인상이 비호의적이어서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참여자들 중에도 적극적인 대처 전략과 남편의 중재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참여자들도 있었다. 처음에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던 참여자들 중에는 여러 중재 조건들과 대처 방식을 통해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선택코딩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며느리들의 고부관계 경험 과정을 범주들이 지닌 속성과 차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해서 계속 유지하는 '긍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과 결혼 초기에는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했으나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

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가 계속 지속한 '부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과 결혼 초기에는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했으나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즉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양적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고부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고부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고부관계의 과정은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험 어느 한 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경험하고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겪기도 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유형과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유형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가 적극적이고 남편에게 호소하는 경우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반면,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가 소극적이고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 표출이 되는 경우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고부관계 형성과 부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어머니의 분화, 경제적 독립, 긍정적인 경제적 교류, 분가, 만족스러운 동거, 남편의 분화, 남편의 아내 지지와 위로, 며느리의 취업, 결혼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 남편에 대한 배려와 연민, 자녀 출산, 시어머니에 대한 공감, 적응과 경계선 분명히 하기, 적극적인 대처였다. 다른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시어머니의 미분화, 부정적인 경제적 교류, 불만족스러운 동거, 시어머니의 다른 형제 편애, 남편의 미분화, 남편의 아내 지지와 위로 없음, 부정적인 대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일천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본 연구의 큰 성과이자 고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동거나 경제적 교류 등의 요인들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따라, 참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육아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했다. 반면에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했다. 또한 경제적 교류는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했는데, 이때 그 교류가 며느리의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도움을 받는 시어머니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시작되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부관계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고부갈등을 자주 경험하는 부정적인 고부관계에서도 남편의 지지와 위로가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잊게 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으며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 고부관계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성과이자 추후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고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부관계도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 두 가지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부관계 증진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작은 소그룹 활동에서부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교육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부각 되었으므로 향후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관계 개선과 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남편을 대상으로 한 고부관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과연 남편들은 고부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고부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남편들에게 고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을 현재 기존 남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편이 될 대학생과 예비 신랑들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와 연계해 고부관계에 대한 이해와 남편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예비 신랑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 고부갈등이 첨예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미혼남성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갈등의 예방과 긍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을 통한 가족복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심각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부갈등은 이혼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나 고부관계에 대한 생각에 매몰되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이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며느리들과 시어머니,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김갑숙(1993).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35-247.
- 구자경(1999).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각하는 고부간의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필양(2004). 고부관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73-187.
- 김충미(1992). 며느리의 입장에서 본 고부갈등의 원인에 입각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연(1994).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1). 장남과 그의 아내. 서울: 새물결.
- 박부진(1981). 한국농촌가족의 고부관계. *한국문화인류학*, 13, 87-118.
- 박현옥(1990).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희(1997). 만며느리의 고부관계 인식-도시지역의 계급별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애·이정덕(1995).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3.
- 성인애(1991). 한국의 고부갈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명옥·이혜자(2002).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0(4), 185-206.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 서울: 교문사.
-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서병숙(1994).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 이정연(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5.
- 이정연·정혜정·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3-26.
- 이혜자(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19, 31-59.
-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2006).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최효일(1992). 고부갈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www.kosis.co.kr.
- Allen, R., Blieszner, R., & Roberto, K. A.(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Beaton, J., Norris, J., & Pratt, M.(2003). Unresolved issues in adult children's marital relationships involving intergenerational problems. *Family Relations*, 52(2), 143-153.
- Bryant, C., Conger, D., & Meehan, J.(2001).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614-626.
- Bryant, C., & Conger, D. (1999). Marital success and domains of social support in long-term relationships: Does the influence of network members ever en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437-450.
- Connidis, A., & McMullin, A.(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58-567.
- Cotterill, P.(1994). *Friendly relations? Mothers and their daughters-in-law*. Bristol, PA: Taylor & Francis Inc.
- Fischer, L. R(1983). Mothers and mothers-in-la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87-192.
- Globerman, J.(1996). Motivations to care: Daughters-and sons-in-law caring for relatives with Alzheimer's disease. *Family Relations*, 45, 37-45.
- Goetting, A.(1990). Patterns of support among in-laws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2(1), 67-90.
- Harrist, W., & Ainsle, C.(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Jorgenson, J. (1994). Situated addres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law" relationships. *The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59(3), 196-204.
- Leuscher, K., & Pillemer, K.(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413-425.
- Limary, B.(2002). *The Mother-in-Law/Daughter-on-Law dyad: Narratives of relational development among in-laws*. Albuquerque, NM: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unpublished dissertation).

- Lopata, H.(1999). In-laws and the concept of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28(3), 161-172.
- Patton, M. Q.(2003).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Pillemer, K., & Suito, J.(2002). Explaining mother's ambivalence toward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02-613.
- Serovich, J. M., & Price, S. J.(1994). In-law relationships: A role theo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the family*, 24(1), 127-146.
- Silverstein, J. L.(1990). The problem with in-laws.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99-412.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Uphold, C.(1991). Positive affect between adult women and their mothers and mothers-in-law. *Journal of Women and Aging*, 3(4), 97-116.
- Walker, A. J.(2000). Refracted knowledge: Viewing families through the prism of social sc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595-608.
- Whitbeck, L., Hoyt, R., & Huck, M.(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9, 85-94.
- Willson, A., Shuey, K., & Elder, G.(2003).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to aging parents and in-Law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4), 1055-1072.

- 접수 일 : 2008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8월 06일